

“흡연 땀 췌장암 발병률 5배... 당뇨병 적극 치료해야”

광주일보·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테마가 있는 건강강좌 (146)

췌장암

췌장암은 발생률은 그리 높지 않은데 우리나라 국가 암 통계 사업에 따르면 남성은 10위, 여성이 8위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암 중 하나이다. 주로 60~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30세 이전에는 매우 드물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많은 종류의 암 예후가 호전됐지만 췌장암의 예후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췌장에서 발생하는 종양은 췌장암, 낭종성 종양, 내분비 종양 등 다양하며 그 중 가장 예후가 나쁜 종양이 췌장암이다. 낭종성 종양 및 내분비 종양은 췌장암에 비하면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많은 환자들은 췌장의 모든 종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췌장 질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췌장 낭종성 종양은 점액성과 장액성 낭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점액성 낭종은 30% 이상에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장액성 낭종은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육류·탄수화물 발병 높이고
채소류·비타민류는 낮춰
1cm 미만 췌장암은
수술 치료로 완치 가능

알려져 있다.

내분비 종양은 크기 2cm 이상에서는 악성화 및 증상 유발 가능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하지만 1cm 미만에서는 악성화 되는 경우가 적다고 알려져 있다.

◇췌장암과 흡연, 당뇨병=췌장암 유발 인자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자는 흡연이다. 췌장암 발생률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2~5배 정도 높다. 3년 이내 발생한 당뇨병도 중요한 인자로 특히 55세 이상에서 가족력 없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 전문의의 긴밀한 진찰 및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당뇨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췌장암 발생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음주와 췌장암의 관계는 정립되어 있지

박창환 내과학교실 교수



-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 일본 도쿄암센터 연수
- 미국 UCLA 의대 췌장암·췌장암 연구실 연수

않으나 음주는 급·만성 췌장염 유발 및 췌장의 질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음주 습관이 요구된다.

최근 비만과 췌장암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나,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다. 육류,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과도한 열량은 췌장암 빈도를 높이고 채소류, 비타민 등은 췌장암 빈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가 유전적 요인이 췌장암 발생과 관계가 깊음을 제시하고 있어서 가족 내에 췌장암 환자가 다수 존재한다면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요하며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심한 체중감소와 황달=췌장암의 증



박창환 교수가 췌장암의 원인과 증상, 진단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상은 매우 심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대표적이다. 누우면 통증이 심해져서 잠들기가 무섭고 앉아서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으며, 2주 이상 지속되고 증상이 악화된다면 전문의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 췌장은 크게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누는데 머리에 발생하는 췌장암의 경우는 담도를 막아서 진한 갈색 소변, 회색 대변, 가려움증 등 황달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심

한 체중 감소 또한 대표적인 췌장암의 증상이다.

췌장암의 진단은 복부 초음파, 복부전산화 단층촬영, 초음파내시경, 자기공명영상 검사 등 복부를 볼 수 있는 많은 검사들이 도움이 된다. 췌장암 선별검사로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해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이 추천되지만 일부 췌장암은 자기공명영상 검사 또는 초음파내시경을 통해서 진단되

는 경우도 있다. 특히 초음파내시경 검사는 매우 초기 2cm 이하의 췌장암 진단에도 도움이 되는데 1cm 미만인 췌장암은 수술 치료로 완치될 경우 예후가 양호하다. 치료는 수술이 유일한 완치법이다. 국소 진행된 병기에는 수술 전 항암제 치료가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어 최근에는 많이 시도되고 있다.

/정리=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개발

골절치료용 단조 금속판 국내 상용화 활기

수입품 단점 대폭 보완... 한국인에 맞춤형 티타늄합금 단조공법 통한 양산 국내 첫 사례

전남대병원 연구팀이 개발한 골절 치료용 금속판이 국내 의료계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이 금속판은 수입품의 단점을 보완한 한국인 맞춤형일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이 가능해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전남대병원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센터장 윤택림 정형외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골절치료 및 뼈 고정용 단조 금속판’의 국내 상용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이근배·김명선 교수와 ㈜폴리바이오텍(주)바이원의 공동 연구를 통해 골절된 뼈를 맞춰 고정

하는데 쓰이는 금속판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금속판은 상지(원위요골, 손목 부위 뼈)와 하지(원위 비골, 발목 부위 뼈)에 쓰이는 의료기기로 티타늄합금Ti-6Al-4V(Grade23)에 단조공법(금속을 두드리거나 누름)을 획기적으로 도입한 국내 첫 사례로 꼽힌다.

의료계의 큰 관심 속에 올해부터 국내 상용화 된 금속판은 현재 전남대병원·분당제생병원·부산마이로병원 등 전국 7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불과 10개월 만에 총 2억 50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거뒀다.

이같이 상용화 초기부터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90% 이상에 달하는 수

입품의 단점을 대폭 보완하고, 임상의가 한국인의 골 형상에 맞도록 직접 설계부터 마케팅까지 참여하는 점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수입 제품은 서양인의 해부학적 구조와 특성에 맞춰져 한국인의 골절 부위에 단단한 고정력을 얻기 힘들고, 연부 조직의 손상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같은 단점을 보완한 이번 금속판은 CT 임상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디자인을 도출해 기존 수입품에 비해 얇은 두께로 충분한 피로 강도를 지니고 있으며, 생체용 티타늄 합금으로 제조돼 생체적합성이 높은 게 강점이다. 또한 부식성이 낮고 단조공법을 통한 가공시간을 단축해 대량 생산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이번 연구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인 ‘차세대 정형외과용 생체이식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공동연구팀은 현재 금속판에 맞는 수술 기구 세트도 개발하고 있어 조만간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택림 센터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퇴행성 골절환 증가와 노인 골절 치료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정형외과 부품 수요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와 각 공동연구개발팀은 앞으로도 사업화를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안과 고재용 교수,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조선대병원 안과 고재용 교수(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사업 총괄책임자)는 최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시와 주관기관인 조선대 및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병원, 광주보건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각종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과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에서 미래 전략산업분야로 채택한 이번 사업을 위해 고재용 교수는 각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설

명한 한편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신 성장 정책의 하나로 조선대병원 안과 고재용 교수가 총괄책임자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안과광학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로부터 2025년까지 6년간 180억원이 투입되며, 특히 조선대학교에서는 이를 위한 시험분석 및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